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8일 화요일 음 7월 21일 (13물)

기상정보

맑음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4℃, 낮 최고 기온은 28~30℃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and 0% cloud cover for Jeju, Gyeongju,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13), sunset (18:50), moonrise (22:13), and moonset (11:20).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맑음, 24/30℃) and the day after (구름 많음, 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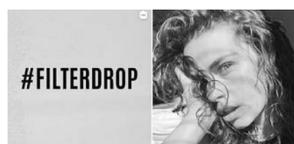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risk levels (위험, 보통).

월드뉴스

보정 없는 셀카 올리기... '필터드롭' 캠페인

영 모델 사샤 팔라리 시작

영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인 사샤 팔라리(28)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필터드롭'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샤 팔라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와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에서 보정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짜 피부"를 더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녀는 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보정해 올린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이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녀들과 젊은 여성 응답자의 3분의 1은 필터로 외모를 보정하지 않고는 SNS에 셀카를 올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팔라리는 인스타그램에서 '필터드롭' 해시태그 달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리라고 독려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box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

한라칼럼



이 남 호 제주대 화학·코스메틱학과 교수

제주 산업단지캠퍼스에 거는 기대

제주 산업단지캠퍼스가 2020학년도 2학기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문을 열었다. 캠퍼스 명칭은 첨단캠퍼스로 해 8월 말 개교식을 거행했다.

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16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제주첨단캠퍼스에는 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과 3·4학년 그리고 제주관광대학교의 멀티미디어계과 2학년 학생들의 교육이 이뤄진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 하면서 산업단지 캠퍼스를 지원하는 데에는 지역발전과 연계된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학융합지구 내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산학협력력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의 고유 기능은 교육과 연구이다. 첨단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구가 대학 캠퍼스에서 이뤄지듯이 산업단지 캠퍼스에서는 산업체가 참여하는 교육과 연구가 진행된다.

제주 첨단캠퍼스는 산업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건립됐다. 산학융합지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지역에 지정

열린마당

철저한 대비의식으로 태풍 이겨내자



양 창 희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다. 보통 6월부터 9월까지가 기온차이로 생성된 거대한 저기압의 한 종류인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시기다.

함께 안전한 곳 이동 ▷주택이나 차량, 선박, 시설물 등의 보호 ▷비상용품 준비해 재난 대비 ▷외출자제 및 어르신에게 수시로 전화해 안부 확인 등 피해 전 대비하고 그에 따른 행동 수칙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현재 소방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침수우려 취약도로, 범람하기 쉬운 하천 및 계곡 등에 대해서 점검·예찰 활동 강화, 호우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안전조치, 대규모 피해 예상지역 소방력 전진 배치 등의 활동으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재난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생활권을 위협하는 큰 피해로 다가 오고 있다. 동일한 생각은 위험의 불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렵지 않다. 한번 더 확인하면 된다. 이젠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접어둬야 한다.

태풍은 매년 찾아온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처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 본인의 생명과 재산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안전의식 전파에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디지털, 그린 제주농업 뉴딜과 안전망 강화



신 양 수 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저탄소 전환으로 경기회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상기후, 소비시장 다변화 속에서 경기침체 극복 및 농업구조 대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제주농업 뉴딜'을 추구한다.

첫째, DNA(Data-Network-AI) 농업생태계 강화와 언택트(Untact·비대면)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제주농업 뉴딜이다. 스마트팜 시스템 등 농업기술보급과 작물별 빅데이터화, 농작업 생력화를 통한 DNA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업생산의 디지털

를 실현하고 비대면 농업인 교육 강화, 농업인의 인터넷 활용 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친환경 농업 실천 역량강화와 인식개선을 통한 그린 제주농업 뉴딜이다. 농업미생물 공급, 토양 분석으로 화학비료·합성농약 저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에너지절감 농업기구를 보급할 것이다. 또 친환경·GAP 교육 확대도 친환경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셋째, 이상기후·소비시장 다변화 선제 대응,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안전망 강화이다. 실시간 기상정보 수집으로 이상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재해 예방 기술보급, 새로운 작목(품종) 도입을 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의 치유기능 강화,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농촌 가치 확산의 기회로 삼는다면 제주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농업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

Grand Hearing advertisement for hearing aid services, featuring a doctor and various product models with prices.

Widex advertisement for hearing aids, highlighting the 'Jeju Center' and 'Maximum 131 million won support' for hearing aid fitting.

Gen Tec Parasol advertisement for high-quality umbrellas, listing various sizes (5m, 4m, 3.5m, 3m) and safety features.

Asmi 4, 5-year warranty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machinery, listing various models and their prices.